

번역학의 의미와 한계

지광신(연세대학교)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흔히 문학작품 해석에 있어서 기표와 기의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해석의 무한 가능성과 제한성의 문제를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의미의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번역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번역의 가능성은 어디에 근거를 둘 수 있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의미의 본질이 무엇인가, 단어의 다의성은 어디에 기인되는가를 살펴본 다음 번역에서의 등가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고찰해본다. 이어서 번역의 가능성에서 전제되고 있는 사고의 보편성과 언어의 보편성에 대해 살펴보고 번역에서 고려되어야 할 언어적 특수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의미의 본질

단어와 실체간의 관계는 고대, 중세, 근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철학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유명론과 실재론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기호와 실체 간의 인과 관계는 Peirce 이후 기호론의 논의에서 제외된다 (Eco 1977; Traban 1989; Coseriu 1969). ‘의미’가 실체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보든지, 알 수 없는 실체에 대한 단지 관념으로만 존재한다고 보든지 ‘의미’는 구체적인 개별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Vico에 의하면 우리의 지각과 인식을 통해 비쳐지는 실체는 그와 똑같은 속성을 가진 다른 많은 실체들을 대신하는 보편적인 형태이며, 구체적인 모든 자질을 갖춘 개별적 실체는 기호와의 관계에서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 반면 Locke는 가상의 실체를 대신하는 관념 Idee 을 설정하였고, 후에 Henry Lee는 이 관념을 공통적인 자질을 가진 많은 개별적 실체들의 한 부류를 지칭하는 기호의 외연 Extension 이란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그 후 Hume

은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에 대한 기호로서 작용한다고 보고 그것은 우리의 연상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co 1977:129). 이러한 철학적 논의의 공통점은 기호의 '의미'가 구체적인 개별 실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자질을 가진 많은 실체들을 추상화시킨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20세기에 이르러 현대 기호학의 모델로 여겨지고 있는 Peirce의 기호론은 바로 이러한 논거에 뿌리를 두고있다. 이러한 의미의 본질은 Peirce의 도상 Ikon 개념에서 잘 드러난다. 도상은 실체가 없어도 어떤 자질을 가진 허구의 대상을 지칭하는 기호도 포함한다. 예컨대 용이나 외각수와 같은 전설상의 동물은 아직까지는 실존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어떠한 자질들을 가진 허구의 대상에 대한 기호로서 용이나 외각수라는 말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상은 예컨대 어떤 동물을 그린 그림과 같은 것이다. Peirce는 도상이란 “우리의 마음 속에 그려지는 그림 *mentales Bild* (Eco 1977:138)”이라고 하였다. 어떤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도상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마음속의 도상이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과 같은 것이며 언어기호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그 형태를 연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Peirce가 말하는 도상이란 개념 역시 추상적인 개념이며 개별적인 대상의 특성 중 몇 가지 특성만을 대표해 줄뿐이다. 예컨대 어두운 곳에서 어떤 꿈틀거리는 물체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 물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한다. 고양이일까? 강아지일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인지되는 물체의 특성들을 조합하면서 머리 속에서는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그러한 특성을 가진 물체에 대한 명칭들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꿈틀거리는 물체가 이전의 경험에 비쳐볼 때 고양이라는 기호에 부여된 특성을 더 많이 가졌다고 인지를 한다면 고양이라는 부류에 귀속시킨다.

Peirce는 도표와 은유적 표현도 모두 도상이라고 본다. 그것은 도상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대상의 물질적인 특징이 아니라 구조적 특징이기 때문이다. 기호란 물체의 물질적인 구체적인 모든 특징들을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몇몇 개의 특징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되는 한에 있어서 그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기호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기호와 구별될 수 있는 특징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수공식도 도상에 포함된다. 그것은 대수 공식이 그

것의 의미를 명백히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1) Ein Mensch ist der Schöpfer seines Geschicks.

(인간은 자신의 운명의 창조자이다.)

Sokrates ist ein Mensch.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Sokrates ist Schöpfer seines Geschicks.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운명의 창조자이다.)

(2) Ein Mensch ist Schöpfer des 'Ilias'.

(한 사람이 일리아스를 지었다.)

Homer ist Mensch.

(호머는 인간이다.)

Homer ist Schöpfer des 'Ilias'.

(호머는 일리아스를 지었다.)

(1-1) $(x) [F(x) \supset G(x)]$

(2-1) $(\exists x) [F(x) \cdot G(x)]$

(1)의 첫 번째 문장과 (2)의 첫 번째 문장의 형식은 거의 같다. 하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 각각은 (1-1)과 (2-1)의 형식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이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만 안다면 이 두 문장의 의미상의 차이는 이 도표에서 쉽게 드러난다. 이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아는 것은 사회적 약속과 인습에 의한 것이지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어자체가 개별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자질을 가진 여러 대상을 추상화시킨 것으로서 인간의 인식을 통하여 지각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 단어의 의미는 다의적일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대상을 지칭하는 기호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음이 이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인식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

는 이름 붙이기는 연상작용에 의해 다양한 의미를 연출해낼 수 있으므로 개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에 의해 한없는 다의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한 언어가 의사소통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미란 은유나 대유 등과는 달리 어휘화의 과정을 거쳐 한 언어권에서 고정되어져서 사회적인 인습에 따라 약속된 범주 내에서 해석되어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단어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다양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 언제나 변화될 수 있으면서도 어느 시점에서는 무한정의 해석의 가능성은 갖지 않는다. 즉 그 의미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한 단어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단어 또는 문장 하나 하나의 의미는 비록 불명확하더라도 다른 단어 또는 다른 문장과 함께 쓰이게 되면 그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추론해낼 수 있다. “단어의 의미는 문맥에 의해 결정된다 (Wunderlich 1991:53).”한 Wunderlich의 말은 단어의 의미는 문맥에 의해 분명해진다는 말로써 이해되어야 한다.

(3) Er nahm ein Buch aus der Tasche.

그는 책 한 권을 가방에서 꺼낸다.

(4) Er geht in den Laden und nimmt ein Pfund Fleisch.

그는 가게로 들어가서 고기 500g을 산다.

(5) Was hast du von Englisch genommen?

너는 영어에서 무엇을 받았니?

위의 예문에서 독일어의 nehmen이란 동사는 그것이 어떤 문맥에서 쓰였는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읽어낼 수가 있다. 비록 독일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nehm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3)과 같은 문장에서 다른 말의 의미를 안다면 꺼낸다라는 의미임을 유추해낼 수 있을 것이고, (4)의 문장에서는 ‘사다’의 의미로 이해할 것이다. (5)에서는 ‘(어떤 점수를) 받았는가’로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의미들은 어떻게 유추가 가능한가? 문맥에 의해 유추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필자는 바로 이것이 사고의 보편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는 어떤 단어의 몇 개의 의미만 알아도 스스로 문맥 속에서 또 다른 의미를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다.

3. 등가성의 개념

번역에서 등가성 *Aquivalenz*이라는 개념이 어떤 영역에서 차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Jäger*는 논리학에서 차용된 것이라고 본다. 이는 논리학이 두 언어의 번역이론에 전제가 되는 학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Wilss* (1977:159)는 수학용어에서 차용되었다고 추측한다. 수학에서는 서로 대치 가능할 때 등가성이 있다고 말한다. 기계번역과 같이 출발텍스트의 모든 요소가 목표텍스트에 1:1로 대응되어 표현되어야 한다면 이 등가 개념이 그대로 번역에 적용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연과학적이거나 기계적인 텍스트 내지 거의 완전히 통일된 규격을 갖고 있는 일부 텍스트들 이외의 다른 텍스트의 일반적인 번역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라도 이러한 등가성을 적용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즉 등가성의 척도로 1:1로 상응하는 것이라는 가정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때로는 등가성의 개념을 전기공학적인 의미에서의 등가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도 한다. 이때 등가성이라는 개념은 주파수를 위한 전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건 간에 결과적으로 출력될 때 똑같은 효과만을 가지면 된다는 것이다. ‘배선망이 다르다’는 것은 두 언어의 상이한 구조와 상이한 사회, 문화적인 조건들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번역에서의 등가성이란 무엇에 관련되는가? 궁극적으로는 출발텍스트와 목표텍스트의 관계에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번역의 목표는 출발텍스트와 목표텍스트의 등가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 텍스트의 구성요소와 기능을 살펴볼 때 어떠한 번역에서도 이 모든 것을 다 등가적으로 이루어 낼 수는 없다. 또한 비록 전체적으로 출발텍스트와 목표텍스트 간에 등가성이 존재한다고 해도 한 텍스트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 사이에 등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한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역에서 등가성이라는 개념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진다. 해석학적 입장이나 목적론적 입장에서는 번역이란 어차피 언어적 대치가 아니고 문화적 차이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등가성이라는 개념자체가 아무 쓸모가 없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목적이론에서 잘 된 번역은 함목적적으로 이루어진 번역이다. 따라서 한 가지 출발텍스트에서도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목표텍스트가 생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번역에서도 어떤 면에 있어서도 출발텍스트와 목표텍스트는 일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번역에서는 목적에 맞도록 출발텍스트가 갖고 있는 여러 정보와 기능 중에서 일부만이 취사선택되는 것이므로 등가성(Äquivalenz)이라는 개념보다는 적합성(Adäquatheit)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가성은 번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Gisela Thome(1990)와 Wolfram Wills(1977), Koller(1992) 등은 번역을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여기면서 번역에 있어서의 등가개념은 절대적이라는 견해를 갖는다. 이들은 번역에서 출발텍스트는 어떠한 번역조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변하는 독립적인 번역의 대상으로 존재해야 하며 그 자체가 목표텍스트로 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지 텍스트의 다양한 구성요소와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출발텍스트와 목표텍스트의 전체적인 등가성을 전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등가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등가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Otto Kade의 등가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Kade는 번역에서의 문제점은 두 언어 사이의 표현 층위와 내용층위 간의 1:1 등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데서 기인된다고 보았다. 그는 두 언어 간의 등가관계를 표현층위와 내용층위가 서로 얼마만큼의 상관성을 갖느냐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는 이 두 층위 사이에 여러 등급의 등가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그 단계를 4단계로 나누었다(Kade 1968:79ff). 두 언어의 내용층위와 표현층위가 1:1로 일치하는 경우를 “완전한 등가 totale Äquivalenz”라고 하고, 이 둘의 관계가 전혀 공통영역을 갖지 않을 때 즉 0:1의 관계에 있으면 “무의 등가 Null-Äquivalenz” 관계에 있다고 규정하였다. 상황이나 문맥을 고려해서 두 언어간에 내용상 일치가 이루어지고 그 표현의 측면에서 1:다수의 관계를 갖게 되면 이 두 언어는 “수의

적 등가 fakultative Äquivalenz” 관계에 있게 된다. 그러나 영어의 heaven/sky와 독어의 Himmel의 관계와 같이 내용의 측면에서 1:일부의 관계를 갖게 되면 이를 “근사의 등가 Approximative Äquivalenz”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두 언어의 체계를 비교하여 각 언어 체계간의 관계를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Wilhelm von Humboldt에 의하면 자연언어는 이 세계를 단순히 묘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의해 규정되는 정신적인 중간 세계를 통하여 예시적으로 중재해주는 것이다. 이 정신적인 중간세계는 본질적으로 언어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은 개별적인 언어를 통하여 언어적 현실로서 중재되어지는 것이다. 어장이론에 의하면 단어나 문장의 의미는 각각의 언어체계 속에서 다른 단어와 문장의 의미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어장 Worfeld을 형성한다. 각각의 단어나 문장은 바로 이 어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그 의미영역이 결정된다. 각 어휘의 장을 구성하는 영역의 의미소의 수가 언어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단어나 문장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개별언어적인 속성 einzelsprachliche Eigenschaft을 갖는다. 그러므로 다른 언어체계에 속하는 단어들을 비교하여 서로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더군다나 언어 체계를 비교하여 두 언어간의 등가관계를 규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Kade와 같은 등가성의 분류는 개별어휘의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을 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번역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의미만을 갖게 된다.

Koller는 관련범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 등가로 구분하였다(Koller 번역본 256쪽).

- (1) 외연적 등가 denotative Äquivalenz : 번역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내용상의 불변체 inhaltliche Invarianz 라고 한다.
- (2) 내포적 등가 konnotative Äquivalenz : 번역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체상의 등가 stilistische Äquivalenz 라고 한다.
- (3) 텍스트규범적인 등가 textnormative Äquivalenz : 텍스트 장르 특유의 자질에 관련되는 등가를 말하는 것으로로서 번역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체상의 등가에 포함시킨다.
- (4) 화용적 등가 pragmatische Äquivalenz : 의사소통상의 기능적인 등가로

서 번역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상의 등가kommunikative Äquivalenz라고 한다.

(5) 형식적 등가 formale Äquivalenz: 출발언어텍스트의 특정한 형식, 미학적인 특성, 언어유희, 언어를 주제로 하는 특성, 개인적인 문체특성등과 관계있는 등가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는 표현의 등가 expressive Äquivalenz라고 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등가성 설정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또는 텍스트 종류에 따라 번역에서 고려해야 할 등가성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운율이 중요시되는 시 번역에서는 시 형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계번역이나 사용 설명에서는 형식보다는 내용면에 있어서의 등가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등가성을 우선순위로 하느냐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이상 직역이나 의역이나의 논의의 중심이었던 언어적 표현의 등가성이 아닌, 텍스트의 기능적인 또는 내용적인 등가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번역에서 고려해야 할 텍스트 내용의 등가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언어학에서는 일찍이 Saussure가 언어적 내용(sprachlicher Inhalt)을 “Bedeutung”과 “Inhalt”로 구분하였고, Frege가 “Bedeutung”과 “Sinn”으로 구분하였으며, Carnap에 의해 “Extension”과 “Intension”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번역과 관련하여 Coseriu(1988)는 “Bedeutung, Bezeichnung, Sinn”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본고에서는 Coseriu의 이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번역에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등가성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Coseriu에게 있어서 Bedeutung이란 한 언어체계 내에서의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말한다. 즉 이것은 어떤 단어나 문장이 사용되고 있는 텍스트나 상황, 화자의 의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한 언어체계 내에서의 객관적 사전적인 의미라고 한다. 예컨대 한 단어의 Bedeutung은 어떠한 두 언어 간에서도 비교될 수도 없고 동일시 될 수도 없는 개별언어적 범주 내에서만 규정될 수 있는 총체적 의미인 것이다. 반면에 Bezeichnung이란 언어적 표현이 지시하는 언어외적 사건 즉 언어외적 사실, 언어외적으로 지시되어지

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독일어의 'bringen'이라는 동사의 Bedeutung은 불어의 'apporter'의 Bedeutung과 다르다. 즉 그들은 쓰임에 있어 항상 서로 대치되어 사용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단지 상황에 따라 서로 동일한 지시적 의미를 가질 때가 있을 뿐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크기가 다른 A와 B라는 대상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달리 표현할 수가 있다. "A가 B보다 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가 하면 "A가 크기에 있어 B를 능가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이 표현들 각각의 Bedeutung은 다르지만 이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때 이들의 Bezeichnung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Coseriu의 'Bedeutung'은 '개별 언어적 의미', 'Bezeichnung'은 '지시적 의미'라고 번역하겠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번역에서 고려해야 할 등가성은 무엇인가? 개별언어적 의미란 그 개념 정의상 두 언어사이에서 똑같을 수가 없다. 단지 출발언어 텍스트에서 어떤 표현의 개별 언어적 의미를 근거로 그것의 지시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그와 같은 지시적 의미를 갖고있는 목표언어의 표현을 찾아내는 일이 번역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를 Coseriu는 '지시적 의미의 등가성 Äquivalenz in Bezeichnung'이라고 하였다.

Coseriu의 Sinn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며 번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Coseriu는 Sinn을 '텍스트의 내용'이라고 하였다. 예컨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말의 Sinn은 단어나 문장의 지시적 의미와는 달리 전체 문맥 속에서 드러나는 궁극적인 화자의 의도인 것으로 텍스트 차원에서만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의 무력함 또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언어적으로 말해진 것 sprachlich Gesagtes"이 아닌 것은 번역에서 고려되지 말아야 한다. Coseriu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순수한 언어적 기술로서의 번역은 단지 언어본질적인 수단이지 화행이라는 언어외적인 수단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 텍스트에서 의미되어지는 모든 것이 번역의 대상은 아니며 근본적으로 번역될 수도 없다. 단지 텍스트에서 언어적으로 말해지는 것, 즉 언어를 통하여 언어 기능 속에서 표현된 것, 말해진 것만이 번역의 대상이 되며 근본적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다. 화행에 내포된 사실은 번역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바로 말

해진 것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단지 덧 붙여져서 설명되거나 부연될 수 있을 뿐이다 (Coseriu 1988:304).

Coseriu에 의하면 번역의 대상은 텍스트의 내용이며 이에는 *Bezeichnung*이 포함되며 *Sinn*의 일부도 번역의 대상에 포함된다. *Sinn*에 관해서는 그는 두 언어 사이의 *Sinn*이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예컨대 검은색과 흰색이 상징하는 바는 언어에 따라 상반될 수 있을 것이다. 출발언어 텍스트 내에서 검은색으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검은색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검은색이 갖고있는 *Sinn*이라고 판단될 경우 목표언어텍스트에서 그대로 검은색으로 번역을 한다면 원작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문맥과 어울리지 못하는 결과가 올 수가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런 경우가 번역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이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제시할 수도 없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번역학의 과제중의 하나는 바로 두 언어간의 서로 다른 *Sinn*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이런 경우 어떠한 등가성을 취사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경우는 특히 문학작품번역에 해당되는데 은유의 문제 또한 이와 유사한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근본적으로 번역에서 추구해야 되는 바는 가능하면 언어적으로 말해진 사실만을 번역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가능하면 번역가의 일방적인 주관적인 해석은 번역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열려진 부분은 글을 읽는 독자에게 맡겨진 고유한 영역이다. 문학성이 강한 글일수록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거워질 것이며 결코 번역가가 침범해서는 안될 영역이라고 여겨진다. 문학성이 강한 글일수록 독자나 시대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글이 갖고 있는 또는 작가가 의도하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번역은 출발언어텍스트에 객관적으로 표현되어진 바를 목표언어텍스트로 가장 적절하게 재현해 주는 것이지 거기에 번역가의 주관적 해석이 곁들여져서는 안된다. 번역가는 번역가로 머물러야 하며 문예학자나 해석학자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번역은 순수한 창작과 구분되어야만 한다.

또한 번역은 번안과 구분되어야 한다. 번역과 비슷한 영역에 속하는 분

야로는 변안 외에 개작, Parodie, Travestie 등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 Vermeer와 같은 일부 번역이론가들은 번역의 목적에 따라 번역의 상황에 적합하게 번역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출발언어텍스트에 대한 번역가의 주관적 해석과 목표언어텍스트의 예상 독자를 강조한다. 또한 이들은 “Übersetzungstheorie”라는 말 대신 “Translationstheorie”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변안, 개작, Parodie 등 번역과 유사한 이웃 영역들을 모두 번역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물론 번역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도 있다. 문화, 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하여 목표언어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를 지칭할 만한 표현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목표언어에 이미 존재하거나 목표언어에서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많은 창의력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목표언어체계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 사용하던지 다른 언어에서 외래어를 차용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번역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한 과정인 것이다(Otto Kade 1969). 오히려 이러한 과정은 목표언어의 표현력을 확장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연관 속에서 Wolfram Wilss(1977)는 번역에서 번역자의 창조적 능력을 중요시 여겼다. 그에 의하면 번역에서 출발언어텍스트를 해독하는 과정에서부터 번역자의 창조력은 발휘되어야 한다. 여기서 창조적 능력이란 예술가에서와 같은 창조적 의미가 아니라 출발언어텍스트를 목표언어텍스트로 옮길 때 부딪치게 되는, 텍스트 해독과 번역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전략을 발전시켜 질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이상적인 번역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따라서 “번역과정에 적용되는 번역의 창조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 질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번역의 등가성과 번역 비판의 객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Wilss 1977:489)”.

일부 번역학자들은 문학의 미학적 기능까지도 번역이론의 수용하여 표현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Gladrow(1988)는 한 언어가 갖고 있는 미학적 기능도 정보기능과 마찬가지로 언어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경우에 따라 어떤 미학적 효과가 출발언어텍스트에서와 목표언어텍스트에서 전혀 다른 언어적 구조로써 표출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어떤 언어든지 정보기능, 미학기능 등 다양한 여러 기능을 다 갖고 있

으므로 원칙적으로 출발언어텍스트가 나타내고자 하는 거의 모든 것을 목표언어텍스트로 재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판단과 어떤 등가성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출발언어텍스트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목표언어로 언어화 시켜 대등한 예술적 실체로서 표현해 내야 하는 것이다. 체코의 번역학자인 Jiri Levy도 최근 언어학의 눈부신 연구 발전 상황에 비추어 보아 문학 번역을 일반 번역이론으로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최근 20년 간 언어학은 여타 사회과학보다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고, 새로운 문제 영역으로 파고들어서 일련의 새로운 연구 방법들을 개발해 놓고 있는 바, 그 중 적지 않은 것들이 앞으로 수년간 예술적 번역의 문제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Jiri Levy 1969:22)”라고 말하고 있으나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였다. 문학 작품의 문학성이 번역을 통하여 얼마만큼 전달될 수 있는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두 언어권의 민족성과 문화의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이에도 기인된다고 하겠다.

4. 사고의 보편성과 언어의 보편성

언어와 사고의 상호작용에 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문제는 인간 사고의 보편성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사고란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관찰될 수밖에 없다. 사고를 관찰 할 수 있는 도구로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언어이다. 언어의 보편성은 곧 사고의 보편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언어의 보편성은 수세기 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최근에 와서 인지 과학의 부상과 더불어 또다시 논의의 초점이 되고있다. 언어의 보편성은 각 언어마다 문법적인 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점에는 한계가 있다는 관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보편 문법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언어의 보편성에 대한 증거는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특히 Franz Bopp에 의한 세계의 어족 Sprachverwandtschaft 관계는 19세기의 비교언어학의 결실이다. 어족구성은 역사적인 고증에 의해 밝혀진 것이 아니라 언어간의 문법과 언어체계의 비교를 통한 재구성이다. Clark는 영어와 Navaho어가 역사

적으로 관계가 없었고, 최근까지 서로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언어가 공통의 특질을 갖고 있음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 공통 자질은 인간 언어에는 꼭 있어야 하는 자질이기에 때문에 두 언어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기동 1992:49). 이런 현상을 뒷받침하는 것이 언어변천 이론중의 ‘개체발생론 Entfaltungstheorie’이다. 이 이론은 시기적으로 지리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언어사이의 유사성에 근거한다. 언어유형론적인 보편문법이든 Chomsky적 의미의 보편문법이든 간에 보편문법은 모두 이런 관찰에 근거하여 언어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인 원칙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언어보편소 language universals 가운데 많은 부분은 언어 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각하고, 범주화하고 사회화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서 파생된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시지각기관이 어떤 색을 다른 색보다 더 뚜렷이 파악하기 때문에, 언어는 무수한 색 가운데서 몇 가지에만 이름을 붙이는데, 이것은 이상하리 만치 일관성이 있다 (이기동 1992: 58)”는 것이다. 그 외에도 ‘자연 범주에 대한 이름, 모양에 대한 이름, 공간에 대한 이름’ 등에서 언어간의 공통성이 발견된다고 한다.

문법범주의 보편성에 관한 언어 이론 중의 하나로 언어 유형론을 들 수 있다. 언어 유형론은 특히 어순 연구에서 두드러지는데, 어순에 관한 연구는 Greenberg에서부터 비로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Greenberg는 1963년 「Some Universals of Gramm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s」에서 세계 30여 개의 언어를 분석하여 언어간에 존재하는 어순상의 보편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는 언어적 자료 분석에 근거한 경험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많은 보편적인 범주를 가려내고 어순에 관한 많은 보편 규칙을 제시하였다. 그는 언어마다 수식하는 말과 수식 받는 말 사이에는 일정한 어순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여 어떤 어순들이 상호 관련되어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Greenberg 통계 중에서 중요한 몇 개의 어순 상호간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에 있어서는 주로 많은 언어가 SOV, SVO의 두 유형에 속한다.
2. SOV 유형은 후치사와 ‘동사-조동사’의 어순을 갖고, SVO유형은 전치

사와 ‘조동사-동사’의 어순을 갖는다.

3. 비교 구문의 어순은 SVO/SOV, 전치사/후치사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4. AN/NA의 어순은 SOV/SVO의 어순과 밀접한 상관성을 갖지 않는다.

Clark는 Roger Brown을 인용하면서 기본 범주의 명칭에서도 보편성이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사과는 사과 외에 과일, 사물, 물건, 황금빛의 사과 등 여러 가지로 불릴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언어마다 ‘사과’라는 명칭이 일차적인 명칭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이는 사과란 명칭이 대부분의 맥락에서 가장 많은 유용성을 지닌 추상의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사과를 단지 과일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을 바나나, 배 등의 다른 과일들과 구별해 주지 못하고, 그것을 황금빛의 맛있는 사과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세부적이라는 것이다. Clark는 그 외에도 지각에 근거한 언어 보편성으로 인해 “인간은 색깔, 물체, 형상, 거리 및 공간적인 관계를 인식하고 기술하기 위한 선천적으로 정립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이것들에 붙여진 기본 명칭에서 나타난다 (이기동 1992 : 74)”고 하였다. 그밖에도 단수·복수의 개념과, 기수·서수의 구분, 다소 차이는 있다하더라도 시제에 관한 구분 방법 등 인지 범주의 보편성과, 친족관계에 관한 명칭, 대명사 체계 등 사회 범주에 관한 언어적 표현의 보편성, ‘정보처리 제약’에 관한 보편성 등 여러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언급된 것 이외에도 우리는 외국어를 배우면서, 예컨대 품사의 범주라든가 동사의 결합과 등과 같은 문법의 구체적 사항에서부터 각운, 두운, 은유, 알레고리, 파라독스, 의인법, 중의법 등 문체의 면에서도 많은 공통 범주를 발견할 수 있다.

5. 언어적 특수성

언어적 특수성은 언어구조와 관계되는 언어적인 현상과 그 언어권의 문화나 언어습관과 관계되는 언어외적인 현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언어에 따라 어떤 언어는 분석적인 구조 *analytische Struktur*를 갖는 경

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언어는 종합적인 구조 *synthetische Struktur*를 갖는 경향이 있다. 함축적인 구조일수록 언어적으로 표현된 의미를 파악하기가 더 어렵다. 예컨대 독일어의 'Holzhaus'는 일반적으로 '나무로 된 집'과 '나무를 쌓아두는 집'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6) Unser Haus ist ein Holzhaus.

우리 집은 나무로 된 집이다.

(7) Hinter dem Haus steht ein Holzhaus.

집 뒤에 (나무를 쌓아두는) 헛간이 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어떤 문맥 속에 들어가면 그 중 어떤 하나의 의미가 자연적으로 선택되어진다. Chomsky적 의미에서 이 단어는 두개의 상이한 심층구조를 갖는다. 번역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어떤 표현이 갖는 표층구조가 아니고 근저에 깔려 있는 심층구조를 파악하는 일이다. 표층구조는 언어마다 상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심층구조란 표층구조 근저에 있는 의미이자 화자의 의도이며, 언어적 현상에 관한 한 표층구조가 그 언어의 체계 내에서 다른 것들과 갖는 상관관계를 규명해 봄으로써 밝혀질 수 있다.

또 한 예로 독일어의 명사구를 들어보자.

(8) Die Regierung hat den Absicht der Neugestaltung des Bildungswesens.

(8-1) Die Regierung hat den Absicht, das Bildungswesen neuzugestalten.

(정부는 교육제도를 개혁할 의도를 갖고 있다.)

(9) die Zuständigkeit des Ministeriums für die Bildung

(9-1) Das Ministerium ist zuständig für die Bildung.

(그 부가 교육을 담당한다.)

위의 예문 (8)과 (9) 문장의 표층구조에서 'des Bildungswesens'와 'des Ministeriums'는 모두 2격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심층구조는 각각 (8-1)과 (9-1)에서와 같이 4격 목적격과 1격 주격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심층

구조는 언어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밝혀질 수가 있다.

외국어를 배울 때나 번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언어 외적인 현상에서 오는 언어의 특수성이다. 예컨대 독일어나 영어나 모두 부정사구문과 부문장을 갖는다. 그러나 그 두 언어에서 부정사구문과 부문장은 같은 환경을 갖지 않는다 (Wunderlich 1991: 23).

(10-1) I want him to come.

(10-2) *I want that he comes.

(10-3) *Ich will ihn (zu) kommen.

(10-4) Ich will, daß er kommt.

(11-1) I see him come.

(11-2) I see that he is coming.

(11-3) *I see that he comes.

(11-4) Ich sehe ihn kommen.

(11-5) Ich sehe, daß er kommt.

(11-6) *Ich sehe, daß er kommend ist.

(12-1) I suppose (that) he is at home.

(12-2) *I suppose him at home.

(12-3) Ich vermute ihn zu Hause.

(12-4) Ich vermute, daß er zu Hause ist.

위 문장에서 독일어와 영어의 ‘wollen-want’, ‘sehen-see’, ‘vermuten-suppose’의 의미적 대응이 가능하다 해도 그 각각이 요구하는 구문론적인 특성은 다르다. 그러므로 번역에서는 이러한 상이한 구문론적인 제약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문론적인 제약은 문맥에서 추론해 낼 수 없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언어적 습관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다음은 언어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 (Hönig/Kußmaul, 1984:

78)를 살펴보자.

(13) Balneum Hermal wird in das Badewasser gegeben (nicht umgekehrt) und gut untergemischt.

(14) Balneum Hermal is added to the bath-water (not vice versa) and is well mixed.

(15) Add Balneum Hermal to the bath-water (not vice versa) and mix it well.

(13)은 Balneum Hermal에 대한 독일어로 된 사용설명서이다. 이것을 단어에 충실하게 영어로 번역을 하면 (14)의 문장이 된다. 그러나 실제 (14)의 문장은 영어에서는 독일어 문장 (13)이 갖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실제 영어로 된 사용설명서에는 (15)와 같이 번역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13)과 (14)는 문장형태는 유사하지만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언표내적인 의미(Illokution)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장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언표내적인 의미를 갖는 (15)의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텍스트 종류에 따라 각 언어마다 사용되는 구문유형이 다르고 언표내적인 의미가 다르다. 이에 Hönig/Kußmaul은 “텍스트 종류에 따라 자주 사용되는 화행이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관행적인 형태들을 번역할 때에는 텍스트의 기능이 그 상위기준으로 작용한다 (Hönig/Kußmaul 1984: 83).”라고 함으로써 번역에서의 언표내적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6. 결론

의사소통과 번역이 가능한 것은 사고의 보편성 때문이다. 번역의 근본 목적은 AS로 표현된 의도를 ZS로 재현해 주는 것이다. 번역은 ‘텍스트의 기능’을 살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단어 대 단어의 번역, 문장 대 문장의 번역으로는 텍스트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주지 못한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호가 본질적으로 명확한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마치 H₂O라는 물분자가 수소원자와 산소원자로 분해되면 물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항상 단어와 단어가 합쳐져서 문장의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문장과 문장이 합쳐져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글자간 또는 문장 간에 숨어있는 α 라는 의미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또한 그 의미는 번역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언어학에서는 그것을 ‘의의’ 또는 ‘언표내적의미 (Illokution)’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 인간 사고의 보편성에 근거하며 문맥에서 추론해 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언어적 습관, 문화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 언어권의 언어적 관습이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번역에서는 필요이상으로 ‘언어적으로 말해지지 않은 것’을 번역할 필요도 없고 또 번역해서도 안 된다. Coseriu의 말과 같이 “단지 텍스트에서 언어적으로 말해진 것, 즉 언어를 통하여 언어기능 속에서 표현된 것, 말해진 것만이 번역의 대상이 되며 근본적으로 번역될 수 있다(Coseriu 1988: 304)”고 생각한다. 어떤 표현이 갖는 ‘의의’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해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해석의 여지는 문학이 갖는 매력이고 독자가 갖는 권리이다. 그것이야말로 작가가 노리는 효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번역에서는 해석의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번역되어야 하는 것은 ‘의의’가 아니고 지시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Wunderlich는 이상적인 번역이란 “가능한 한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며, 꼭 필요한 만큼만 의역을 해야한다고 하면서 구체적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Wunderlich 1991: 20).

첫째, 단어선택은 ZS의 문맥에 어울려야 한다.

둘째, AS-텍스트의 언어적 기능을 살려줄 수 있는 ZS의 표현을 찾아낸다.

셋째, AS-텍스트에 있는 다의성, 불확실성, 암시, 관용구, 은유 등을 가능한 한 번역에서도 살려주되 새로운 것을 추가해서는 안된다.

넷째, ZS의 상황에 맞게 번역해야 한다.

다섯째, 문체상의 효과를 살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물론 AS-텍스트의 모든 기능이 다 번역될 수는 없다. 모든 언어가 다 사고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언어는 지시기능 referenzielle Funktion; Mitteilungsfunktion; Informationsfunktion 외에도 시적기능 ästhetische Funktion; poetische Funktion, 호소기능 appellative Funktion; affirmative Funktion, 감정표현기능 expressive Funktion; emotive Funktion, 교감기능 phatische Funktion, 언어분석기능 metasprachliche Funktion 등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예컨대 언어의 시적 기능은 번역하기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Searle은 원칙적으로 모든 언어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표현해 낼 수 있다고 했지만 거기에 2가지 제약을 두었다.

“두 가지의 있을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하나는 표현가능성이라는 원칙이 화자가 노리는 모든 효과를 청자에게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찾고 만들어 낸다는 것이 항상 가능하다는 사실을 내포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문학적 시적 효과, 감정, 견해 등. 또 하나는 생각하고 또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말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화자 자신의 의의 다른 사람에게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개인적인 언어의 가능성이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Searle 1971: 35f.)”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언어구조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언어사용에 있어서의 각 언어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혀내는데 번역학의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해석의 부분은 번역학의 영역에서 가능하면 배제되어야 할 영역으로서, 이는 상이한 두 언어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언어권내에서도 “화자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개인적인 언어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 점이 바로 번역학의 한계인 것이다.

참고문헌

- 신현정(역), 사고와 언어, 성원사, 1985.
 이기동(편저), 언어와 인지, 한신문화사 1992.

- 지광신, “번역에서의 등가개념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 인문과학 제69·70
집(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187-210.
- 지광신, “번역의 언어학적 성찰”, 문학과 번역 (연세대학교 번역문학연구소),
창간호, 1997, 15-35.
- Albrecht, Jörn, Literarische Übersetzung. Geschichte, Theorie, Kulturelle
Wirkung. 1998.
- Coseriu, Eugenio, “Falsche und richtige Fragestellungen in der
Übersetzungstheorie”, in: Jörn Abrecht, u.a. (Hrsg.), Energieia und
Ergon, Bd. I, Tübingen 1988.
- Coseriu, Eugenio, Die Geschichte der Sprachphilosophie von der Antike
bis zur Gegenwart, Stuttgart 1969, Teil.
- Eco, Umberto, Zeichen. Einführung in einen Begriff und seine Geschichte,
Frankfurt/M. 1977.
- Jürgen Trabant, Zeichen des Menschen, Ffm. 1989.
- Eco, Umberto, Die Grenzen der Interpretation, Deutscher Taschentuch
Verlag 1999(2.Aufl.)
- Gladrow, W., “Die Äquivalenz als linguistisches Problem der künstlerischen
Übersetzung”, Zeitschrift für Slawistik, 33(1988), Heft 2.
- Hönig, Hans G., Konstruktives Übersetzen, Stauffenburg Verlag, 1997(2.
Aufl.).
- Hönig, Hans G. /Kußmaul, Paul, Strategie der Übersetzung. Ein Lehr-
und Arbeitsbuch. 1984.
- Kade, Otto, Zufall und Gesetzmäßigkeit in der Übersetzung, Leipzig,
Leipzig 1969.
- Kloepfer, Rolf, Die Theorie der literarischen Übersetzung. 1967.
- Koller, Werner,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1992(4. Aufl.).
- Levy, Jiri, Die literarische Übersetzung. Theorie einer Kunstgattung.
1963.
- Nord, Christian, Einführung in das funktionale Übersetzen, Francke 1993.
- Reiß, Katharina, Texttyp und Übersetzungsmethode. Der operative Text.
1983.
- Reiß, Katharina/Vermeer, Hans J., Grundlegung einer allgemeinen
Translationstheorie. 1991(2. Aufl.)
- Searle, J. R., Sprechakte. Ein sprachphilosophischer Essay, Ffm. 1971.

- Wunderlich, Dieter, Arbeitsbuch Semantik, Ffm. 1991.
Wilss, Wolfram, "Der Begriff der Kreativität im Übersetzungsprozeß", in:
Harald Weydt (ed.), Logos Semantikos, 1977.

Zusammenfassung

Die Bedeutung und die Grenze der Übersetzungswissenschaft

Jee, Kwangsin(Yonsei Univ.)

In dieser Arbeit habe ich die Möglichkeit und die Grenze der Interpretation in der Übersetzung behandelt, wobei das Wesen der Bedeutung in Betracht kommt. In diesem Zusammenhang wollte ich auch feststellen, was übersetzt werden soll. Dazu wird zuerst betrachtet, was für die Bedeutung eines Wortes charakteristisch ist und worauf die Mehrdeutigkeit beruht. Anschließend wird über die Äquivalenz bei der Übersetzung und die Universalität im Gedanken und in der Sprache erwähnt. Abschließend habe ich einige Beispiele angeführt, die die Unterschiede im Sprachgebrauch und in der sprachlichen Struktur zeigen.

Coseriu stimme ich in dem Punkt zu, dass 'nicht all das in einem Text gemeinte, sondern ... nur das in diesem Text sprachlich Gesagte, d.h. das durch die Sprache in ihrer Zeichenfunktion Ausgedrückte, das Verbalisierte,' übersetzt werden soll, was jedoch nicht heißt, dass die Wörter oder die Sätze übersetzt werden soll. Trotz der Verschiedenheit der einzelsprachlichen Gestaltung der Bedeutungen und der Sprachstrukturen kann man mit Hilfe der Bedeutung die gleiche Bezeichnung und den gleichen Sinn in einer anderen Sprache wiedergeben, wobei der Kontext und die Universalität im Gedanken und in der Sprache eine große Rolle spielt.

In diesem Zusammenhang findet man einerseits die Bedeutung der Übersetzungswissenschaft, deren Aufgaben darin bestehen, den Unterschied und die Gemeinsamkeit zwischen den Sprache sowohl im Hinblick auf die sprachlichen Struktur als auch auf den Gebrauch festzustellen. Die Grenze der Übersetzungswissenschaft besteht andererseits darin, "dass man eigentlich nicht alles, was man meinen, auch sagen kann und dass nicht alles, was gesagt werden kann, auch von anderen verstanden werden kann".